

# 동물산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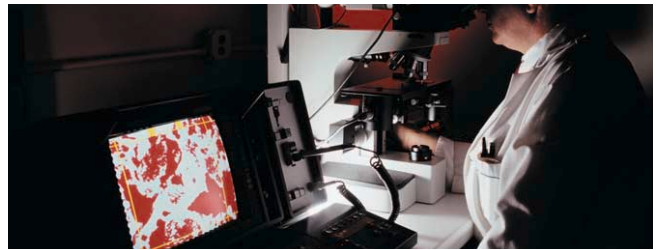
##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으로 키우자

세상에는 유행이 있듯이 학문분야에도 유행이 있는 모양이다. 동물자원과학이 속해 있는 농학은 그 근본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각종 동·식물의 생산과 응용을 통하여 인류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농업을 뒷받침하는 학문이다. 특히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에 관해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중요성이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는 학문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비교우위론에 밀리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쟁력에 밀리다 보니 농업과 농학자체의 인기가 계속 추락하는 현실을 이 분야에서 종사해온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농학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가 사라지거나 ‘농’자를 빼고 ‘산업’이나 ‘생명’이란 단어를 넣어 새로운 작명으로 어떻게 하면 ‘농’의 냄새를 희석시킬까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 민망하기 그지없다. 심지어는 바탕이 농학인데도 불구하고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볼 때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와서 인기가 상승가를 치고 있는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농학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과 활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농학의 발전을 위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중요한 연구수단(tool)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언제부터인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생명공학으로 통용되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기술’인데 왜 ‘공학’이 되어버렸는지, 농학 분야임에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왜 ‘공학’이란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 하는지 역시 어색하고 민망스럽다.

덴마크는 조그만 나라이지만 양돈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들은 자국의 양돈 산업을 하이테크놀로지산업이라고 한다. 고도의 육종기술로 우수한 개량종을 만들어 내고, 도축장에서는 로봇이 도체를 하고 등급판정을 하며, 레이저 광선이 절단선을 가이드하고, 자동 샘플러가 채취한 샘플이 실험실로 자동 이송되면 GC로 응취를 검사한다. 이와 같이 덴마크의 양돈 산업에는 응용가능한 모든 하



이테크놀로지가 총동원되어 양돈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그들의 양돈 산업이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화훼 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또한 하이테크놀로지산업임을 자랑한다. 이와 같이 농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면 WTO체제를 염려하기보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동물산업분야는 이미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동물애호적인 사육 환경과 축산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동물산업과 관련학문이 현재의 종사자와 앞으로 대를 이을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분야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산업을 경쟁력 있는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으로 키워나가는 데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글 | 백인기 \_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